

'반값 목욕탕' 을 아시나요

순창군, 취약계층 대상
이용요금 회당 2000원
지난해 9월~현재까지
1만6678회 이용 '인기'

순창군이 읍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중목욕탕 이용지원 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23일 현재까지 1,235명의 대상자가 1만6,678회 지원을 받아 목욕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1명당 평균 13.5회를 이용한 셈이다.

특히 9월부터는 기존과 다른 이용방법을 변경해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들의 손가락 지문이 많아 지문인식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개인 비밀번호 역시 기억하기가 어려워 9월부터 개인용 보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대폭 높인 것.

또 지금까지 읍지역 목욕탕 1곳이었



순창군 대중목욕탕 자료사진

던 것을 2곳으로 확대 지원한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목욕탕 이용요금 5,000원을 기준으로 군과 목욕탕업주의 부담을 제외하면 읍지역 해당 주민은 회당 2,000원의 비용만 지불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사업은 면단위에 있는 작은목욕탕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면지역 주민과의 역차별도 해결하는 효과도 있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명당 주 2회 월 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휴서기인 6월~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군은 이번 개인용 보안카드 확대를 통해 목욕탕 이용 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오미자의 모든 것 순창서 만난다

내달 9일~10일 수확체험부터 공연·판매까지 오감만족

순창의 우수한 품질의 오미자를 직접 수확도 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제3회 순창 복흥 오미자 축제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순창군 복흥면 정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복흥면 오미자 작목회에서 주최한다.

복흥 오미자는 준 고평지 지역의 특성으로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돼 열매가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다. 최근 복흥면의 오미자의 품질이 알려지면서 소득 작목으로 떠올라 현재 복흥에서는 113농가가 42ha 규모에서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품질 좋은 복흥 오미자를 전국에 알리고 문화행사를 통해 도농교류의 장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순창=이양원 기자



오미자 수확체험,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시식 및 시음행사, 판매코너 등이 마련돼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2,000여명의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

군 관계자는 "복흥 오미자 축제는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축제다"면서 "순창 복흥 오미자의 품질을 전국에 알리고 농가들의 판매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30일 실내체육관에서 귀농귀촌협의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인 300명 한자리에

순창, 어울림 한마당 성료
공연·장기자랑 등 화합

귀농·귀촌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2의 고향 순창에서 귀농생활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됐다.

군은 30일 실내체육관에서 귀농귀촌협의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귀농귀촌협의회(회장 양환욱)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귀농·귀촌인 3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열기를 실감케 했다.

문화공연과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 화합 한마당 행사는 물론 농촌

의 혁신과 발전, 귀농·귀촌 정책과 성공사례 등에 대한 특강도 진행돼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됐다는 평이다.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재훈 박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귀농귀촌협의회 양환욱 회장의 특강, 귀농귀촌센터 이수형 소장의 특강이 이어져 귀농인들의 실제 삶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다.

오후 시간에는 김규민 강사의 웃음치료와 총정기수 공연 퀴즈, 귀농인들의 장기자랑,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 시간이 이어져 귀농·귀촌인들과 순창 군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큰 잔치가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세무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 생활 속 세금고민 '뚝'

마을세무사 제도 효과 노릇
수준 높은 상담서비스 호응

골머리 앓는 복잡한 세금 고민을 앓은 자리에서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임실군은 세무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복잡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고 절세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3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분기별로 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수준 높은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150여명이 찾아 고민을 해결했다. 특히 세금과 법률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와 일정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맞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오는 9월 18일 삼계면, 강진면, 신덕면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정팀(☎640-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저출산 현상 극복 최선
CJ라이온과 선물 지원 협약

남원시와 CJ라이온이 남원에 출생 등록한 2017년 전 출산가정에 '아이! 깨끗해' 향균 폼 핸드숍 세트를 출산 축하선물로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9월 1일부터 출생신고 현장에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원시와 손을 잡은 생활용품 전문기업 CJ라이온(주)는 최근 국가 차원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조기에 극복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출산 축하선물을 증정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3년간 남원시에 출산 축하선물로 '아이! 깨끗해' 향균 폼 핸드숍 세트 지원을 약속했다.

'출산축하선물 패키지'는 핸드숍 250ml용기와 200ml 라일 2개로 구성된 '아이! 깨끗해 세트'로 아기와 엄마, 아빠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품형 손 세정제로 남원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즉시 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도에 기 출생 등록한 전 출산가정은 읍면동별로 별도 소급 지원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판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소식통

남원시 구도심 기록화 박차
다양한 공간·삶의 모습 담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남원시는 지난 8월부터 구도심 기록화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구도심 기록화는 향후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따라 사라지거나 원형으로 복원되기 어려운 남원의 공간과 삶을 기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록화로 통해 수집된 결과물은 향후 역사기록관 남원다움(2018년 예정)에 전시되어 시민에게는 향수를,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도심 기록화는 1차 기초조사를 통해 공간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2차 심층 조사인 실측 및 영상 촬영, 인터뷰 등을 통해 그 안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순서로 진행된다. 기록화 작업은 남원다움이 위치하게 될 금동(고샘지구)을 시작으로 남원의 삶과 이야기가 존재하는 남원의 옛 역사 일대, 공설시장 등을 순차적으로 기록화 할 예정이다.

이번 기록화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구도심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남원의 다양한 공간과 삶의 모습을 담아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예산·회계담당자 60여명 대상

3천억 예산 시대를 맞은 임실군이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앞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군청사 농민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예산·회계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광덕 예산팀장이 강사로 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비롯해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지방보조금 제도, 성인지 예산 제도 등을 안내했다.

군은 오는 2018년 예산편성 중점을 민선6기 공약사업추진 가속화 및 성공적 마무리, 군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적극 발굴·추진에 두고 있다.

또한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성과부진사업 축소·폐지 및 유사사업 통합·폐합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내달 15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및 용역과제 심의, 예산 실무심사 등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21일까지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